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금속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24.07.22
교섭
속보
VOL.10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7.22.(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10차 지부집단교섭, 임금교섭 돌입

명성공업 사측, 2차례에 걸쳐 임금 제시를 통해 의견접근



**우정완 명성공업지회장은, 명성의 의견접근안이 지부집단교섭의
최저 출발점으로 인식될까 우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15시에 지부 10차 집단교섭이 지부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섭에는 노측 정진홍 지부장 외 20명, 사측 디에스시 오증석 상무 외 11명이 참석했다.



노측 교섭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월요일은 지부운영위 등 지부일정이 많아 집단교섭을 하지 않던 관례가 있었지만, 명성공업에서 교섭을 요청해 응했다. 많은 교섭위원들이 참석했으니 헛되지 않도록 안이 제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 교섭대표 오증석 디에스시 상무는 “오늘 본격적으로 임금 교섭이



시작된다. 각 사업장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명성공업 사측은 1차 제시안으로 시급 80원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이를 수용거부 하였다. 이어, 2차 제시 안으로 시급 100원을 제시하며, 사측 명성공업 교섭위원은 “의제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임금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정완 명성공업지회장은 수용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는 자동차부품사가 아니라 중공업 분야 사업장이다. 오늘 사측의 제시안을 노조가 수용했는데 이것이 지부 집단교섭의 최저 출발점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명성공업지회가 수용하는 것이 지부 임금교섭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며 사측 2차 제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홍 지부장,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인상안 마음 너무 무겁다. 물량 확보는 사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

마지막으로 노측 교섭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지부장으로서는 마음이 무겁다. 물가 인상에도 못 미치는 안이다. 현재 업무량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가 풀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추가 임금 제시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가 발언 없이 15시 33분 폐회를 선언했다.